

〈그리피스 컬렉션〉 사진에 대한 기독교사적 고찰*

조경덕**

정혜경***

양상현****

논문초록

본 논문은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 1843~1928)가 수집한 사료들 중, 기독교와 관련된 사진들을 한국 기독교의 사적(史的) 맥락에서 고찰한 글이다. 그리피스는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1882)의 저자로서 잘 알려졌다. 그는 당시 서양인의 한국 입문서로 역할을 한 이 책 외에도 다수의 한국 관련 글을 집필했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열정적이고 꼼꼼하게 수집하였다. 그가 수집한 자료들은 미국 뉴저지 주립 럿거스 대학교의 도서관(Rutgers University Library)에 기증되었고 〈그리피스 컬렉션(Griffis Collection)〉으로 명명되어 보관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기독교 학교 및 선교 활동, 신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100년 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시각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해당 사진들을, 황해도 재령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전라북도 전주를 배경으로 한 사진, 의료 선교 사업과 관련한 사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황해도 재령 배경의 사진과 전라북도 전주 배경의 사진은 각각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의 선교와 관련된 것으로서 당시 미국 장로교의 한국 선교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황해도 재령 배경의 사진은 1916년 무렵 여성 성경 공부반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의료 선교와 관련된 사진들은 주로 로제타 홀이 평양에 세운 병원들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이 사진들은 의료 선교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사를 돌아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 그리피스 컬렉션, 근대 한국 기독교 사진, 미국 장로교, 황해도 재령 교회, 로제타 홀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제1저자 순천향대학교 강사

*** 제2저자 순천향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3저자 및 교신저자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015년 5월 14일 접수, 9월 7일 최종수정, 9월 8일 게재 확정

I. 들어가며

이 논문은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 1843-1928)가 수집한 사료들 중, 기독교와 관련된 사진들을 한국 기독교의 사적(史的) 맥락에서 고찰한 글이다. 검토할 사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것들이다. 그만큼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는 주요한 시각 자료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글은 이미 발표된 『<그리피스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 사진 자료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고찰』(양상현 외, 2014)의 후속 논문에 해당한다.

그리피스는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1882)의 저자로서 잘 알려졌다. 그는 당시 서양인의 한국 입문서로 역할을 한 이 책 외에도 다수의 한국 관련 글을 집필했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열정적이고 꼼꼼하게 수집하였다. 그가 수집한 자료들은 후에 미국 뉴저지 주립 럿거스 대학교의 도서관(Rutgers University Library)에 기증되었으며, 이 자료들은 <그리피스 컬렉션(Griffis Collection)>으로 명명되어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리피스가 생전에 모은 잡지, 책자, 인쇄물, 사진, 스크랩북, 서신과 쪽지들이 망라되어 있다. 대략 3/4 정도가 일본 관련 자료이며 나머지가 한국과 중국에 관한 자료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580여장에 이르는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관련 사진 자료들 중 기독교 학교 및 선교 활동, 신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 기독교사의 맥락에서 이 사진들에 등장하는 배경과 인물들을 고증하여 기독교사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I. <그리피스 컬렉션> 사진을 보는 관점

본격적으로 <그리피스 컬렉션>의 기독교 관련 사진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소장된 한국 관련 사진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검토해보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피스 컬렉션>의 사진들이 어떤 경로로 그리피스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추정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피스는 일본 후쿠이(福井)현 고등 교육 기관에서 자연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1871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3년 6개월간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1874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죽기 1년

진인 1927년, 다시 일본을 방문하고 만주와 한국 등지를 한 달 동안 여행했다고 한다. (양상현 외, 2014:13-14) 이렇게 볼 때 그리피스의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은 그가 일본에 온 1871년 즈음부터 시작하여 그가 사망하는 1928년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대를 상정하면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사진의 출처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첫 번째, 일본인 사진가들이 찍은 사진이다. 일본인 사진가는 청일전쟁 무렵부터 한국에 진출하여 근대 한국의 풍속, 풍경 사진들을 생산해 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서양인 여행가들이 찍은 사진이다. 여행가로서 이들은 이방으로서 한국의 독특함을 사진에 담아내려 했다.¹⁾(이경민, 2010:7) 마지막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이다. 서양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파송한 선교 본부에 선교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선교 사업과 관련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한국과 관련한 사진은 대부분 이방인 사진가들이 찍은 셈이다. 그만큼 이들 사진에는 이방인의 시선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전형을 포착하려는 욕망과 그것을 문명의 위계 가운데 배치하려는 의도가 있다.

한국을 방문한 이방인들의 사진 기록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는 1880-90년대 이후부터였다. 이 무렵에는 사진 촬영과 제작, 유통에 기술적 제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진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나 경험의 폭에도 한계가 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단편적으로 혹은 몇 가지 정형화된 시각에 따라 소개되었다.²⁾(박평중, 2009:256; 박현순 외, 2009:245) 이러한 경향의 사진 생산은 일본 사진 산업에 의해 활발하게 한동안 이루어졌다. 예컨대 1901년에 설립된 조선 최대 사진엽서 인쇄 제작사였던 히노데 상행(日之出商行)이 만든 한국의 풍속과 풍경을 담은 다양한 주제의 엽서 시리즈와 합병이후 정기적으로 발행된 『조선풍속풍경사진첩』의 사진이 그것들이다.(이경민, 2006:262)

1) 이경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사진 수용은 개항 이후 개화파들의 도움으로 조선으로 건너와 일본인 거류지에 자리를 잡은 일본인 사진사와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종군했다가 조선에 남아 사진관을 개설한 일본인 사진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 다른 축은 19세기 후반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에 의해서다. 제국의 확장과 함께 외교, 선교, 상업, 학술 연구, 이국 취미, 언론 보도, 군사 등 다양한 목적과 이유에서 이 땅을 찾은 서양인들은 보고서와 여행기 그리고 문학 작품과 연구 논문 등 조선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2) 우선 사진 촬영에 기술적 제약이 있어 당시 대부분의 사진은 사진관 안이나 집 근처에서 연출되어 촬영된 것이 많았다. 그리고 가마를 탄 여성의 모습, 기생, 젖을 드러낸 가난한 여성들의 모습이 한국을 알리는 사진으로 많이 생산되었다.

상투머리에 手巾을 질끈동이고 곰방담배 대물고 장작집 지고 가는 지계軍, 젓가슴 내여 노코 행주치마를 휘휘 저으며 광주리 이고 가는 婦人, 冠 쓴 老人, 더빙머리 總角, 어린애 업은 少女 등 모든 너저분한 寫眞만 만히 내여 걸었다. 불사륙 속만 傷한다. 골이 벌컥 나서 그대로 중얼거리며 나왔다. 書館에 들릴 勇氣도 업다 우리의 꼴이 그 모양인 바에 남을 나무랄 것이 업다 그러나 日本 사람 中에는 엇지 그보다 더 뵈죄주한 꼴이 업슴을 期必하랴. 그들 中에는 그보다 더 醜率한 것이 만음을 내 눈으로 보았다. 米國 사람 中에도 있고 英國 사람 中에도 있다. 貧者 賤子 치고는 그 꼴이 그럴 밧게 업다. 그러나 그 꼴악산이를 公公然하게 萬人의 眼前에 寫眞박혀 내여건 것은 업다. 이것이 日本 사람의 낮분 心思이다. 저의들의 그 꼴은 決코 안이 내여 대이며 우리들의 것만 내여 廣告하려함은 무슨 안이꼬운 心思인지(一記者, 1922:77-78)

익명의 한 기자가 1922년의 어느 날,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산책하며 인상 깊게 본 것을 기록한 글의 한 대목이다. 필자는 진고개를 지나다가 어느 사진관에 들어갔는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고 개탄을 한다. 아마도 그가 본 것은 ‘히노데 상행’ 같은 곳에서 발행한 한국의 풍경과 풍속에 관한 사진들인 듯하다. 상투를 하거나 관을 쓰고 곰방대를 문 사람들, 지계꾼, 젓을 드러낸 여성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 등, 당시 한국인과 한국의 풍경을 정형화된 시각으로 포착한 것들이다. 필자에 따르면 그 사진들은 “日本 사람의 낮분 心思”가 반영되었다. 조선의 좋은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너저분한” 사진들만 당시 조선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듯이 전시해 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미국이나 일본에도 ‘조선풍속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너저분한” 모습이 있다고 지적하는 대목이다. 즉, 기자는 진열된 사진들에서 힘이 약한 민족을 향한 이방인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100년 전 한국을 담은 사진들에는 한국을 문명의 위계 차원에서 포착한 이방인의 시선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은 <그리피스 컬렉션>의 사진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의 시각에서 한국과 한국 사람을 대상화한 <그리피스 컬렉션>의 사진은 역사적 자료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들에 내재된 이방인의 시선은 자료로서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구한말 한국인이 경험해야했던 역사적 상처들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무엇보다도 그 사진들에는 100년 전 한국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시간성은 사진들에 감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사진의 예술적 수준은 시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사진을 찍은 뒤 곧장 보느냐 얼마간 세월이 흐른 다음 보느냐에 따라 우리

는 그 사진을 미적으로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 사진들은 100년 전에 촬영되었다는 데 가치가 있다. (Susan Sontag, 2009:44)

〈그리피스 컬렉션〉의 사진들 중, 한국의 기독교와 관련된 사진들은 대개 서양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으로 짐작된다. 역시 일본인 사진가와 서양인 여행가의 사진들처럼 이방인의 시선이 개입되어 있지만 더불어 이들 사진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선교 상황 보고라는 특정한 목적이 담겨 있다.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떤 문화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곳이 어떻게 ‘기독교화’, ‘문명화’ 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기독교 관련 사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사진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한국을 포착한 것이라는 점 외에 서양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의 시선으로 촬영되었다는 점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기독교 관련 사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Ⅲ.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기독교 관련 사진

〈그리피스 컬렉션〉의 상당수 사진에는 그 뒷면에 필기체로 흘려 쓴 메모가 있다. 이 메모에는 해당 사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사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점검해야 할 문제가 있다. 즉, 이 메모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이다. 우선 사진을 수집한 그리피스가 썼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피스가 한국을 여행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것은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진의 메모를 그리피스가 썼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사진을 수집할 때, 사진가에게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사진 뒷면에 직접 적어 넣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리피스 이전, 중간에 사진을 수집한 수집가가 첫 번째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적어 넣었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사진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적어 넣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사진가에게 사진 찍는 것을 의뢰한 사람이 사진에 관한 정보를 적어 넣는 경우도 포함한다. 아마도 〈그리피스 컬렉션〉 사진의 메모들의 작성 방식은 위 세 가지 방식 중 하나일 것이다. 만약 그리피스의 필체를 안다면 메모의 주체를 분간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줄어들게 될 것이지만 현재 그것은 여의치 않다. 따라서 위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그 메모가 담고

있는 정보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관련 사진 자료를, 사진이 담고 있는 사건, 혹은 대상물의 성격을 근거로 1. 관혼상제, 2. 전쟁, 3. 생활, 4. 궁궐과 왕실, 5. 도시·건축, 6. 종교, 6. 기타로 분류하였다.(양상현 외, 2014: 9-10) 이 글에서 주로 다룰 기독교 관련 사진은 ‘6. 종교’ 항목과 ‘3. 생활’ 항목에서 추려낸 것이다. ‘종교’ 항목에는 당연히 기독교 관련 사진들이 포함되었거니와 ‘생활’ 항목에는 ‘교육’과 ‘의료’ 등 하위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 관련 사진이 분류되어 있다. <그리피스 컬렉션>에서 기독교 관련 사진은 ‘종교’ 항목에 25장, ‘생활’ 항목에 30장 등 대략 50여장(43)이 있다. 이들 사진은 기독교 학교와 관련된 사진, 선교사와 선교 현장을 담은 사진, 의료 선교와 관련된 사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은 15장이다.³⁾ 그리 많은 수의 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0년 전 선교 현장과 의료 사역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는 사진들은 기독교사 연구에 필요한 시각 자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상 사진들은 황해도 재령을 배경으로 한 사진, 전라북도 전주를 배경으로 한 사진, 의료 선교 사업과 관련된 사진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 지역을 나누어 교파별로 선교 지부를 설치했다는 특징이 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미국 북장로교,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교가 주로 선교 사업을 벌였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8:214-215) 즉 대상 사진의 황해도 재령을 배경으로 한 사진은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라북도 전주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 선교가 한국 기독교 선교의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 선교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 넣었다.

3) 이전 연구에서 <그리피스 컬렉션>의 사진이 갖는 사료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에 소개된 사진과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대조한 사진집은 다음과 같다. 서문당에서 간행된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 시리즈 전 6권(1986), 『민족의 사진첩』 시리즈 전 3권,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전시도록 『서울의 옛 모습』(1998), 시사영어사의 『사진으로 본 옛 한국: 은자의 나라』 사진첩(2002), 동아일보의 특별 부록 사진집 『100년 전 한국』(2005), 청년사에서 간행한 『서양인이 만든 근대 전기 한국 이미지』 시리즈 전 3권(2009) 등.

1. 황해도 재령을 배경으로 한 사진



사진 1 황해도 재령 교회(case 07_kp1-1) 사진 2 황해도 재령 교회 (case 07_kp1-1)



사진 3 황해도 재령 교회(case 07_kp1-1) 사진 4 황해도 재령 교회(case 07_kp1-1)

사진 1 Bible Class women crowding in for a “sightsee” of the only brick house in town. chairyung, Korea 1916.(번역. 시내에서 하나뿐인 벽돌집을 구경하기 위해 성경반 여학생들이 모여 있다.)

사진 2 뒷면에 적힌 글 없음.

사진 3 Bible calss women coming down the hill after morning prayers at the church. chairung, korea 1916. (번역. 성경 공부반 학생들이 교회에서 아침 기도를 마치고 언덕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사진 4 A portion of the General Women’s Bible class in chairyung korea. spring of 1916(번역. 총회장이 담당하는 성경 공부반 학생들. 한국 재령. 1916년 봄.)

위 사진들은 성경 공부반(Bible Class)에 온 신자들과 학생들을 찍은 사진과, 그 사진에 있는 메모 내용이다. 사진에 적혀 있는 메모에 따르면, 위 사진들은 모두 1916년 ‘Chairyung’에서 찍은 사진이다. ‘Chairyung’은 그 발음으로 미루어보건대 황해도 재령(載寧)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⁴⁾ 즉 위 사진들은 황해도 재령에서 선교사들이 운영하

4) 당시 황해도 재령 선교사였던 William B. Hunt의 아들, Bruce F. Hunt는 선교 상황에 관해 인터뷰

는 성경 공부반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공부반은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사진 속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포착된 모습이 매우 활기차게 보인다. 그런 점에서 위 사진들은 1916년 무렵 황해도 재령의 기독교 교세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교육으로는 공립보통학교 5개소에 생도 1,500여명 사립학교 5개소에 생도 1,200여 명, 公立尋常小學이 2개소에 생도 234명이요 기타 유치원이 2개 소, 서당이 119개소인데 就中 장로교회 경영인 읍내의 私立明新學校는 창립 20여 년에 다수한 청년을 양성하였고 現今은 高等科 普通科가 병설되야 남녀학생 150여 명인 바 목사 林澤權씨와 교장 金洛泳씨가 주관하며 특히 吳宗信여사의 수천원 기부로 校況이 더욱 떨치는 중에 있다. 그리고 목사 金璉承씨 주관인 載寧유치원은 설비와 건물로 보아 載寧의 자랑거리라 하겠다.

종교로는 前項에 말한 바 基督教가 최다하니 교회당이 24개 소에 信徒가 4,000여명인 바 戊午이후로 米人韓緯廉君 芮彬諸씨의 노력과 또는 濟衆院設置가 그 발전의 직접 원인이라 하며 天道教는 信徒가 150여 人에 불과하고 佛敎는 朝鮮人이 95명 日本人 800여 명이고 侍天敎는 信徒가 500여 명이라 하며 近日은 普天敎가 침입되야 일반 有志의 걱정거리가 되어있다.(車相瓚·朴達成, 1925:63-64)

인용문은 『개벽』 25년 6월호에 실린 황해도 재령에 관한 기사이다. 사진이 찍힌 연대와는 약 10여년의 차이가 있으나 1916년 황해도 재령의 교회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글의 필자는 “黃海道에서는 載寧을 基督教 天下라고 한다.”며 재령의 교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보면 장로교회에서 경영하는 읍내의 ‘私立明新學校’가 창립된지 20여년이 되었다고 하고 교회당이 24개소에 신도가 4,000여 명이라고 한다. 또한 “米人韓緯廉君 芮彬諸”의 노력과 제증원의 설치가 교회 부흥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韓緯廉’은 윌리엄 헌트 선교사(William B. Hunt, 1869-1953)의 한국식 이름이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가까운 한국 발음을 따 이렇게 한국식

기사를 남겼는데 여기에 황해도 재령의 표기에 대한 대목이 있어 소개한다. HUNT: That was called Chairyung [the “r” is almost silent]. The Koreans called it Chairyung. The...Americans sometimes, ‘cause of the difficulty, they just say “Chai Ryung,” but the Korean pronunciation is “Chairyung.” <http://www2.wheaton.edu/bgc/archives/trans/104t01.htm>

이름을 마련하였다. 한위럼 선교사는 1897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북장로교의 한국 파송 선교사로 임명받았고, 19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황해도 재령에서 선교를 하였다. 재령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1893년에 설립된 신환포 교회였으며 그 후 1895년에는 재령읍 교회가 세워졌다. 재령읍 교회는 한위럼 목사가 부임한 1906년에 십자가형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며 1922년에 서부교회가 분립할 때 재령 동부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 재령 동부교회는 재령 지역 다른 교회들의 설립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박응규, 2004:34-46)



사진 5 황해도 재령 교회(case 07_kp1-1)

사진 5 The main street of Chaeryung Korea, filled with Bible Class women on their way back from with Bible Class women on their way back from morning prayers at the church. 1916. Note the ford auto that piles to and from the R.R.(번역. 1916년 한국 재령. 아침 기도 후 돌아오는 성경 공부반 여성들로 가득한 거리. 철도역까지 왕복하는 포드 자동차가 눈에 띈다.)

또한 황해도 재령의 사진들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진 속 여성들이 하나같이 착용하고 있는 머릿수건이다. 특히 <사진 5>⁵⁾의 머릿수건의 모습이 돋보인다. 이 머릿수건은 근대 개성 이북의 부인들이 즐겨 쓰던 것이다.(김영숙·김명숙, 1998:63) 특히 평양 여성들의 머릿수건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매개로 이태준의 『패강령』(1938)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 바 있다.⁶⁾ 이 사진에서 주목하여 볼 점은 카메라의 위치가 길과 피사체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어 위에서 굽어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가는 여인들의 머릿수건을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반이 이루는 교세를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러한 카메라의 시선은 많은 머릿수건이 이루는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표상하며 길의 소실점까지 사진에 담음으로써 여성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5) 사진 이름 옆의 기호는 〈그리피스 컬렉션〉의 분류 체계를 따랐다. 분류 체계의 상세 사항은 (양상현 외, 2014: 13-16)에 소개되어 있다.

6) 『패강령』에서 주인공, 소설가 현은 38년 현재의 시점에서 평양 여인들이 더 이상 머릿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아쉬워한다. 중일전쟁이후, 일제는 경제적 긴축 차원에서 평양 여인들의 머릿수건 착용을 금지한 것이다. 작품 전개에 있어 평양 여인의 머릿수건이 주된 소재로 차용된 셈인데 위 황해도 재령 사진들은 과거 평양 여인의 머릿수건 착용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태준, 1938)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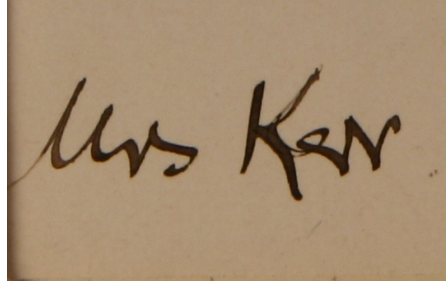


사진 6 황해도 재령 교회(case 07_kp1-1) 사진 7 재령 교회 사진 뒷면에 있는 서명

한편 이 사진들, 즉, ‘1916년 재령’을 찍은 사진의 뒷면에는 하나같이 ‘Mrs. Kerr’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사진의 출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당시 황해도 재령에는 한위럼 선교사 외에 군예빈(Edwin W. Koons) 선교사, 공위량(William Kerr) 선교사, 의료 선교사였던 황호리(Harry C. Whiting) 선교사가 있었다.(박응규, 2004:34-46) 이것으로 보아, 공위량 선교사, 미국 이름으로 윌리엄 커 선교사의 부인이 위 사진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한 선교사 총람』에 의하면, 공위량 선교사는 1908년 10월 8일,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했고 황해도 재령 선교부에 주재하며 선교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17년 이후부터는 서울로 옮겨 일본인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했으며 2차대전 후에는 일본에 거주하며 한국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에 노력했다고 한다.(김승태·박혜진, 1994:299) 한편, 성경관의 문제로 1918년에 황해 노회로부터 축출되었다고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박응규, 2004:172) 아무튼, 공위량 선교사는 1917년 혹은 1918년에 황해도 재령을 떠났다는 것으로서 위 사진들이 찍힌 연대인 1916년 무렵에는 재령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선 논문에서는 위 사진들의 배경을 1903년 미 선교사 모펫(Samuel Austin Moffett)이 평양에서 개교한 승의 여학교로 보았다. 배경이 되는 건물이 승의 여학교의 교사(校舍)와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다.(양상현 외, 2014) 그러나 사진들의 뒷면에 적혀 있는 ‘Chairyung’이라는 표기와 황해도 재령에 거주했던 한위럼 선교사 인터뷰에 나오는 재령의 지명 표기가 같은 것, 그리고 사진들 뒷면에 적혀 있는 재령 선교사,

공위랑 부인의 서명, ‘Mrs. Kerr’로 보건대 위 사진들의 배경은 황해도 재령 교회로 고쳐 잡는다.

<사진 6> 역시, 앞의 사진들과 같이 1916년의 재령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이다. 사진 속 집 이름이 “seen haven”이라고 적혀 있다. 아마도 한국 사람이 지은 이름인 것 같다. 천국처럼 시설이 좋은 집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 집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 때문에 그 집이 천국과 같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현관에 서양인 여성 선교사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여인은 <사진 1>의 여성과 동일 인물인 듯하다. <사진 1>의 여성도 갓난아이를 안고 있으며 배경이 되는 건물의 모양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진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여성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서양 여성 선교사가 지도하는 여성 중심의 성경 공부반에 대한 사진들로서 한국 기독교회사에서 여성들과 성경 공부반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이다. 이들 사진은 아마도 성경 공부반을 담당했던 ‘Mrs. Kerr’ 선교사가 선교 사업 보고를 위해 촬영한 사진들일 것이다. 커 선교사가 사진기를 소유하였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찍는 상황을 커 선교사가 통제하고 주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팅 하우스(whiting house)가 건립된 후 첫 일 년 동안 그녀(송씨 부인)는 파이팅 부인을 돕기 위해 매일 시장에 갔다. 파이팅 부인은 구경꾼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전도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 문서들을 나누어 주었다. 몇 년 동안, 파이팅 부인은 그녀의 집에서 여성들을 위해 목요 공부 반을 운영하였다. 그녀는 또한 가정 통신 강좌도 열었다. 1915년에는 1300여 명의 여성들이 창세기와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기 위해 등록하였다. 헛트 부인의 수업에서는 수백 명의 한국 여성들이 한글 읽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또한 집에 찾아오는 소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교리문답을 가르쳤다. 헛트 부인과 커 부인은 음악을 가르쳤다.(Rhodes, 1934:235)

인용문은 당시 황해도 재령의 여성 선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성 선교사들은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러 나온 여성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집에서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리문답과 음악도 가르쳤다. 인용문에서 음악을 가르쳤다는 ‘커 부인’이 바로 사진 메모에 등장하는 ‘Mrs. Kerr’다. 한국 교회 성장의 비밀은 성경 공부 훈련 제도에 있다고 할 만큼, 성경 공부반은 한국 교회 부흥의 공신이었다. 1909년 평양, 선천, 재령의 사역지에서 600차례 성경 공부반이 열렸고, 등록한 자의 수만 해도 41,000명이었다고 할 만큼 성경 공부반의 활약은 컸다.(Rhodes,



사진 8 테이트선교사가족(c12_albm-3_N)

1934:254) 그런 점에서 위 사진들은 당시 황해도 재령의 성경 공부반이 얼마나 부흥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시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재령은 평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진 자료가 얼마 남아 있지 않는 지역이기에 더 그렇다.⁷⁾

2. 전라도 전주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

지금까지는 황해도 재령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에 살펴볼 사진들은 전라도 전주 등지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다. 황해도와 평안도에는 미국 북장로회가 주로 선교를 하였지만, 전라도 지역은 미국 남장로회가 선교를

맡았다.(류대영, 2012:12) 그 중에서 전라북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교사는 테이트(Lewis Boyd Tate; 1862-1929), 우리식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다. 그의 부인 마르다(Martha B. Ingold Tate), 그의 여동생 매티(Mattie S. Tate)도 테이트와 함께 전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사진 8>은 마르다와 매티를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Miss Tate seated Mrs. Tate standing”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앉아 있는 여성이 테이트의 여동생 매티이고, 서 있는 여성이 테이트 선교사의 부인인 마르다라는 얘기다. 매티는 1864년생이며 오빠 테이트와 함께 1892년 6월에 한국 선교사로 임명 받았다. 남편은 1894년, 전주에 선교 지부를 건설했으나 동학 농민 전쟁 때 철수하고 1896년 1월, 다시 전주에 돌아와 정착하였다. 1897년 7월 17일, 3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호남 지역 최초의 한국인 교회인 전주 서문교회의 시작이다.

마르다는 1867년생으로서 1897년 9월에 의료 선교사로 내한했다. 그가 전주 지부로

7) 『옛 사진으로 읽는 새로운 역사』(이덕주, 2007)에는 1938년에 찍은 재령 여자성경학교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위 사진과 더불어 재령의 성경 학교 역사를 재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배치 받았을 때는 이미 테이트 남매가 그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다. 테이트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 마르다가 살 집과 진료소 건물을 지어 주었다. 그렇게 전주에서 함께 선교 사업을 하던 테이트와 마르다는 1905년 9월,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류대영, 2012:28-29)

아래의 <사진 9>에는 “Mrs. Tate ready to start in Korean chair to visit a sick woman, Chun-ju”(번역. 테이트 부인이 가마에 앉아 여 환자를 돌보기 위해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 전주)라고 적혀 있다. 부인 오른 편에 있는 여성은 선교사의 여정을 수행하는 사람인 듯하고, 뒤에 서 있는 남성은 가마꾼인 것 같다. 여성과 남성은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데 테이트 부인은 카메라 방향과는 비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테이트 부인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찍는 사진이 아니라 그녀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남겨 놓는 사진임을 보여준다. 한편 당시 가마는 여성들이 주로 이용한 운송 수단이었지만 서양 여선교사는 이를 꽤나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애너벨 메이저 니스벳(Anabel Major Nisbet; 1869-1920) 선교사는 매티 테이트 선교사가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마를 타고 왔다고 말하면서 가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894년 봄 사람들의 호기심과 적대감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자 매티 테이트 양은 테이트 씨와 함께 전주로 내려왔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그녀는 가마를 타고 여행했다. 이 가마는 그 크기가 사변이 3피트, 높이가 4피트 정도 되었고 네 개의 작은 지주 위에 덮개를 씌운 형태로 밑 부분에 두 개의 긴 막대기가 가로 질러 있다. 승객은 상자같이 생긴 의자의 바닥에 앉는다. 가마에는 커튼이 달려 있어 승객을 보이지 않게 가려주며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차단시킨다. 네 명의 가마꾼들은 어깨에 한 쌍의 걸대를 메는데, 몸 한쪽으로 늘어져 있는 고리에는 가로막대의 끝이 끼워진다. …(중략)… 테이트 양이 가마에서 나올 때 잠시 동안 견지 못할 정도로 쥐가 난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Anabel, 2011:21-22)

한국 여성의 체형을 고려해 만든 가마에 상대적으로 체구가 큰 여성 선교사들이 탔으니 다리에 쥐가 날 만도 하다. 그리고 그 안의 환경도 공기가 통하지 않아 꽤 답답했던 것 같다. 그래서였는지 보통 남성들의 운송 수단이라고 여겨졌던 조랑말을 여성 선교사가 이용하곤 했다. <사진 10>은 여성 선교사가 조랑말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담았다. 사진 뒷면에는 “on the way to Pomasa”(번역. 범어사 가는 길)라고 적혀 있다. 즉, 부산의 범어사(梵魚寺)로 가는 여정을 포착한 것이다. 조랑말을 탄 여성 선교

사 앞에는 빈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의 주인은 또 다른 서양인 선교사로 보인다. 아마도 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것이다.



사진 9 테이트부인(c12_albm-3_N)



사진 10 선교사의이동 (c09_kp1-3_N)

<사진 11>에는 “Miss buckland of chun-ju two Korean teachers.”(번역. 전주의 버클랜드 여사와 두 명의 한국인 선생님.)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버클랜드(Buckland Sadie Mephram, ?-1936)는 남장로교의 여성 선교사로서 1907년에 군산 지방 선교부에 파송되었다. 그리고 1911년 전주 기전여학교 교장 랭킨(Nellie B. Rankin)이 사망했을 때 교장 대리를 맡았다.(김승태·박혜진, 1994:151; 이덕주, 2007:56; 오승재 외, 2003:61) 버클랜드 양 옆으로 조선인 여성이 둘 서 있다. 메모에 ‘Korean teachers’로 소개된 것으로 보아 버클랜드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인 듯하다. 버클랜드의 왼편에 있는 선생님은 다음의 사진에서도 등장한다.



사진 11 선교사(c12_albm-3_N)



사진 12 절구질(case12_albm-3_N)



사진 13 절구질(c06_kp1-2_O)

<사진 12>에서 절구 공이를 들고 있는 여성은 <사진 11 >에서 버클랜드 선교사의 원 편에 있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다. 이 사진에는 “Two Korean young women pounding rice and thus segregating grain from hull. Back of them is ____’s wife”(번역. 두 젊은 여인이 절구질을 하여 쌀 껍질을 분리하고 있다. 그들의 뒤에 있는 이는 ____의 부인이다.)라고 적혀 있다. 절구 공이를 들고 있는 여성은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거니와 옷이 일하는 차림은 아니다. 한국에는 이런 절구라는 기구가 있고, 이 기구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찍은 사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의 ‘조선풍속사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사진의 인물 배치나 인물의 표정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사진 13>이 예의 전형적인 ‘조선풍속사진’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여성이 카메라를 쳐다보며 절구 공이를 들고 있다. “조선에는 절구란 것이 있고 이 절구 공이로 곡식을 찧어 먹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진 12>와 비슷하다. 그런데 옷차림을 포함한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아 인물과 절구 간에는 개연성이 있다. <사진 12>와 다른 점이다. <사진 12>에서는 절구 공이를 들고 있는 여성이 여유 있게 웃는 표정이 인상적이다. 그 ‘여유’는 이 여성이 사진을 찍는 주체인 서

양인과 어느 정도 관계(rapport)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절구질하는 여성들 뒤에는 한 서양 부인이 카메라를 보며 서 있다. 앞서 사진에 있었던 버클랜드 선교사는 아닌 듯하다. 사진 안 선교사의 존재는 이 사진을 <사진 13>과 같은 ‘조선풍속사진’과는 차별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선교 사업의 현황을 알리는 정보로서의 성격이 특권화된 사진인 것이다.

이 사진과 비슷한 구도로 조선의 풍속을 찍은 사진이 <사진 14>이다. 이 사진에는 “chairyung, women pounding clothes for cleansing.”(재령 다듬이질하는 여인)이라고 적혀 있다. 배경이 재령이니 다듬이질하는 여성들 옆에 서 있는 서양 부인은 앞서 거론한 황해도 재령 지역의 선교사 부인 중 한 명일 것이다. 이 사진 역시 조선의 풍속으로서 다듬이질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다. 다듬이질하는 두 여성은 조선의 다듬이질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 모습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어린 아이 구경꾼들과 서양 부인이 서 있다. 어린 아이들은 카메라를 쳐다보고 서양 부인은 다듬이질을 보고 있다. 각자 익숙한 것보다는 낯선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사진 14 다듬이질(case07_kp1-1_N)

이때 <사진 14>의 ‘조선 풍속’을 보여주는 인물과 서양 부인의 관계와 <사진 12>의 그것을 비교하면 후자의 관계가 덜 수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차이는 ‘풍속’을 연출하는 인물들의 신분에서 비롯된다. <사진 14>에서 다듬이질을 하는 인물들은 문명의 세례를 입지 못한 일반 농민이지만 <사진 12>에서 절구질을 하는 인물은 미션 스쿨의 교사이며 사진

속 선교사와 관계(rapport)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진의 화면 안에 ‘풍속’을 연출하는 조선인 인물과 서양인 선교사가 자리 잡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문명의 위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절구질과 다듬이질이라는 조선의 ‘풍속’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관찰되어야 할 것이며 종래에는 문명화되어야 할 것으로 대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 12>와 <사진 14>의 서양 선교사들은 ‘풍속’의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문명의 위계’에 따른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절구질과 다듬이질은 서양인이 조선의 ‘풍속’을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소재였던 것 같다. 서양인들이 찍은 사진 중에 이러한 ‘풍속’을 찍은 사진이 많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 ‘풍속’은 서양인 여행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가) 가뜩이나 좁은 마당이 방과 장독들로 둘러싸여 더욱 좁아 보였다. 여인 둘이 1미터 남짓한 절구공이를 들고 통나무 절구에 든 벼를 찧고 있다. 절구의 모양새며 절구질하는 방식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것과 너무 닮아 신기했다.(Norbert, 2012:423)

나) 코리아 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남편의 우아한 옷을 세탁하는 일이다. 다루기 힘든 망사 같은 옷감은 양반의 패션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쉽게 다림질되지 않는다. 대신에 한 쌍의 나무 막대로 두드려 펴는데, 그 과정에서 옷은 매우 훌륭한 고유의 광채를 내게 된다. 나무 막대로 옷을 두드릴 때 나는 고유의 음악은 서울의 특징적인 소리 중 하나이다. 하루 종일 도시의 모든 곳에서, 수백 명의 부인들이 나무로 된 다림질 막대기로 연주하는 실로폰 래그타임 음악이 통행인을 맞이한다.(Elias, 2012: 63-64)

인용문 가)는 프랑스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1870-1956))가 한국을 여행하며 목격한 절구질에 대해 쓴 글이고, 인용문 나)는 독일인 여행가, 버튼 홈스(Elias Burton Homes; 1870-1958)가 한국의 다듬이질에 대해 쓴 글이다. 베버는 아프리카 여행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아프리카 풍속의 사진을 보았는지 한국의 절구질 풍경이 아프리카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서양/아프리카-한국’이라는 문명의 위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버튼 홈스는 한국의 주요한 문화로서 다듬이질을 의복 문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다듬이질의 소리에 주목하는데 밤중에 다듬이질 소리가 마치 “실로폰 래그타임 음악”과 같다고 묘사한다. 이 절구질과 다듬이질에 대한 기록은 다른 여행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들 이미지가 한국의 특징 혹은 전형적인 모습으로 표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의료 선교와 관련한 사진들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 올 때 허용된 선교 사업은 ‘학교와 병원’ 사업이었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8:185) 특히 조선 왕실과 지배층 관료가 서양 문명과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계기는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에서 부상을 당한 민영익을 치료한 것이었다고 볼 때 한국 기독교 선교에서 의료 선교의 역할은 중요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행적의 많은 부분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기독교에 있어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 15 복음듣는 할머니(c07_kp1-1_N)

An old lady of Chunju who recently died at age of 84. she heard the Gospel when 80 and readily accepted christ. previous to her acceptance of christ she had a nervous twitching of the cuscles of the gave. she said the trouble was caused by little devils and her cut places to let out the devils. after she became a christian the cervous trouble left her.

번역: 최근 84세의 나이로 사망한 전주의 한 할머니이다. 그녀는 80세에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녀는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긴장했다. 그녀는 악마들에 의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악마가 나가도록 했다. 그녀가 기독교인이 된 후 신경 문제는 그녀를 떠났다.

<사진 15>에는 한 할머니가 여러 사람에게 둘러 싸여 있고 그 뒤에는 병풍이 드리워져 있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이 할머니는 80세에 예수를 믿고, 앓고 있었던 병이 나았다고 한다. 홀로 앉아 있는 것이 힘겨울 정도로 기력이 쇠하였는지 젊은 여성에게 안겨 카메라 앞에 앉아 있다. 신경 계통의 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할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귀신의 침입으로 여겼던 것 같다. 복음서의 예수도 귀신을 쫓아 병을 고쳤으니 이 할머니가 병과 관련하여 예수를 믿을 때, 세계관의 혼란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기독교 신앙에 이르는 과정의 한 갈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

다음은,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과 그녀가 세운 평양 맹인학교에 관한 사진들이다. 로제타 홀은 장애인, 여성, 아동들을 위해 봉사했던, 한국의 근

대 특수 교육과 의료 사업의 선구자였다. 그녀의 남편 윌리엄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4) 역시 청일전쟁의 부상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의료 선교사였다. 로제타 홀이 미국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서 내한한 것은 1890년 10월 13일이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 중, 남편과 딸을 잃는 등 가족사적으로 큰 아픔을 겪지만 그것을 딛고 의료 사업을 펼쳐나갔다. 1897년 2월 21일, 기홀병원(紀忽病院, The Hall Memorial Hospital)을 세우고 1898년 5월 1일 광혜여원(廣惠女院, Wome's Dispensary of Extended Grace)을 설립했다. 그리고 1894년부터 점자 사용법을 개발하여 시각 장애인 교육을 시작하고, 1909년에는 청각 장애인 교육으로까지 확대하였다.(탁지일, 2011:87-91)

〈사진 16〉은 로제타 홀이 세운 평양 맹인 학교의 졸업 사진이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에 동일한 배경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는 홀 여사와 졸업생 5명의 모습만 담겨 있다. 즉 〈사진 16〉은 졸업식 후 졸업생들과 함께 학교 관계자와 재



사진 16 평양맹인학교(c08_kp2-2_O[T])

학생들이 한데 모여 찍은 사진이다. 학생 몇몇은 흰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데 그것은 졸업장으로 보인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서양 부인인 로제타 홀이다. 그리고 그녀 왼편의 서양 부인은 로제타 홀을 도와 특수 교육에 헌신한 인물로서 ‘Ms.Q’로 알려진 인물이다. 사진을 찍은 연대는 대략 1920년대로 추정된다.(김정권·김병하, 2002:61,93면)



사진 17 아이들(c08_kp2-2_N)



사진 18 평양맹아학교학생들의
외출(c07 kp1-1 N)

<사진 17>은 농아 학교 아이들을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의 뒷면에는 “Group of Deaf boys and their teachers—they are making signs for the two precious words “Jesus loves” Luke VII:27.. (번역: 농아 학생들과 선생님.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수화로 표현하고 있다. 누가복음 7장 27절.)”이라고 적혀 있다. 뒤쪽에서 있는 학생들이 제각기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화 표현인 것이다. 사진 아래쪽 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중년 사내는 선생님이로 보인다. 이 중년 사내는 평양 맹인학교 졸업 사진인 <사진 15>의 뒷줄 맨 오른쪽에 있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며⁸⁾ <사진 18>에도 등장한다.

<사진 17> 설명 말미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 7장 27절’이라고 성경 구절이 표시되어 있다. 해당 성경의 본문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이다. 이 구절은 예수가 세례자 요한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아마도 이 사진 메모의 주체는 로제타 홀, 혹은 그와 가까우며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선교사 자신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진에 등장하는 중년 사내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다. 이 사내는 <사진 16>에서 젊은 청년인데 <사진 17>과 <사진 18>에서는 중년 사내로 보인다. 그만큼 오랜 시간동안 평양 농아 학교와 맹인 학교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은 알

8) 이 사진은 『사진으로 보는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에도 실려 있는 사진이다. “평양맹아학교 농아부 남학생들이 수화시범을 보이고 있다. 하늬 농교육은 홀 여사가 중국에 이익민 등을 보내어 중국 체후(芝罘)에 있는 동료 선교사가 운영하는 농아학교에서 배워 온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김정권·김병하, 2002:52)

수 없지만 이 학교에서 헌신한 한국인 선생님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교사들에게 예수의 사역을 예비하는 인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

한편 <사진 18>은 평양 맹인, 농아학교의 소풍 사진이다. 사진 오른쪽에 ‘기차 우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기차 우물’의 오기이다. 평양의 ‘기자정(箕子井)’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 것이다.⁹⁾ 기자 조선을 세운 기자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보인다.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에 따르면 ‘기자의 묘’는 평양의 북쪽 15Km 거리에 있는 경치 좋은 곳이다. 그는 종종 ‘기자의 묘’로 소풍을 간 것을 회상하고 있다.(셔우드 홀, 2010:162)



사진 19 광혜여원(c08_kp2-2_N)

Woman's Hospital of Extended grace, Pyong yang at the time of visit of Surg·Genl Fujita, President of the Government General Hospital of (at) Soul(at that time) Dr. Hall standing in the foreground by Dr. Fujita Dean Sato of Gov't Med Sch and Mr. Nakano chief of sanitary section of police Headquarters. Stand a step or two higher and Dr. Mary M.butler and our korean nouses a bit in the rear.

번역: 평양 광혜여원. 서울의 후지타 국립병원 원장이 방문했을 때, Dr. Hall 이 후지타 박사, 사토 과장 나카노 경찰위생 과장의 앞쪽에 있다. 계단 위쪽에 메리 박사와 버틀러 박사, 한국인 간호사들이 보인다.

<사진 19>의 건물은 1908년에 완공된 광혜여원 건물이다.(Hall, 2010:237) 메모에 ‘fujita’등의 일본인들이 방문했다고 쓰여 있다. 이 사람은 ‘조선총독부의원(朝鮮總督府醫院)’의 초대원장으로 부임한 일본 육군 군의감(軍醫監) 출신 후지타(藤田嗣章)이다.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는 1907년에 창설한 ‘대한의원’의 문을 닫았다가 한 달 후 9월에 조선총독부의원을 개설하고 군의감이었던 후지타를 병원장에 임명하였다. 조선총독부의원은 대한의원을 이어받아 식민지 조선의 의료 전반을 관할했다. 일제는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1909년부터 각 지방에 자혜의원을 설립하여 풍부한 재정과 의료진을 바탕으로 높은 비율의 무료 진료와 우수한 기술을 행하며 당시 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던 기독교 병원을 무력화하였다. 그리고 총독부는 병원에 대한 행정 규제

9) 『사진으로 보는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에 또 다른 기차 우물 배경의 사진이 있다. 이 사진에도 ‘기차 우물’이라고 적혀 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서양인이 쓴 글씨 같다. (김정권·김병하, 2002:84)

를 강화하는 법령을 시행하였다. 1913년, 외국인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사 규칙을 제정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일본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영국과 영연방인 캐나다의 의사 자격증은 인정하되 호주와 미국의 의사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아 호주와 미국 출신 의사들은 일본 내무성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치러야 했다. 따라서 한국 의료 선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국 출신의 의료 선교사들은 동경에 가서 시험을 보아야 했다. 그리고 1919년에는 기독교 병원을 경찰의 통제하에 두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만열, 2003: 238-245)¹⁰⁾

즉, 위 사진은 일제 강점기에 의료 정책을 관할하였던 후지타의 광혜의원 시찰 기념으로 찍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위생과장도 시찰 자리에 함께 하였는데, 그것은 합방 후, 위생과 관련한 모든 사무가 경찰로 이관되었으며 1919년 이후에는 기독교 병원을 경찰이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만열, 2003: 240; 박윤재, 2005: 337-338) 그런 점에서 위 사진은 식민지 시기 일제가 기독교 병원을 통제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라 할 수 있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배경 사진 중, 기독교와 관련한 사진 자료를 추려 살펴보았다. 이 사진들의 대부분은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100년 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재구하는 데 중요한 시각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논문은 이 사진들이 한국 기독교사의 연구 자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각 사진의 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진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항을 고증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해당 사진들을 황해도 재령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전라북도 전주를 배경으로 한 사진, 의료 선교 사업과 관련한 사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항목 구성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기독교 관련 사진 중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사진들의 대부분이 이들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황해도 재령

10) 1913년에 제정된 의사 규칙은 1919년 사이토 총동이 부임하면서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의사들은 한국 내에서는 무시험으로 의료사업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변화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다시 신임 선교사에 대한 의사 자격증을 허가제로 바꾸었다.

과 전라북도 전주 배경의 사진은 각각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선교와 관련한 사진들로서 미국 장로교의 한국 선교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황해도 채령의 성경 학교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주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사진의 촬영 시기는 주로 1930년대 후반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채령 성경 학교의 사진의 촬영 시기가 1916년이나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황해도 채령 성경 학교의 변천 과정을 시각적으로 재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황해도 채령의 사진들은 승의여대의 승의역사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양의 승의학교 사진들과 관련지어 100여년 전, 서북 지역의 여성 선교를 조망하는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당시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채령과 평양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머릿수건을 쓰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에 대한 복식사(服飾史)적인 관심도 요청된다. 그리고 전주 배경의 사진들은 전주대박물관 소장 사진들과 더불어 남장로교 역사를 살피는 데, 의료 선교와 관련한 사진들은 한국 의료사와 기독교 선교 의료사를 검토하는 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다음 연구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사진 속 배경과 인물들을 고증하고자 했으나 많은 부분을 물음표로 남겨두고 말았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사진 속 서양 선교사, 한국인 동역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 교회를 만들어 왔던 신도들, 특히 여성 신도들의 공헌이 값있게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R. Harry A.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Chose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Seoul, Chosen.
- A. M. Nisbet, 한인수 옮김 (2011).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의 호남 선교 초기 역사 (1892-1919)』. 경건.
- E. B. Homes. 이진석 옮김 (2012). 『1901년 서울을 건다』. 푸른길.
- N. Weber. 박일영·장정란 옮김 (2012).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분도 출판사.
- Sherwood H. 김동열 옮김 (2010). 『닥터 홀의 조선 회상』, 좋은씨앗.
- Susan Sontag. 이재원 옮김 (2009). 『사진에 관하여』. 이후.
- 김승태·박혜진 엮음 (1994).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김영숙·김명숙 (1998). 『한국 복식사』. 청주대학교 출판부.
- 김정권·김병하 (2002). 『사진으로 보는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 특수교육.
- 류대영 (2012).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 가족의 한국 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7호. 한국기독교와역사 연구소.
- 박윤재 (2005). 『한국 근대 의학의 기원』. 해안.
- 박응규 (2004). 『한부선 평전』, 그리심.
- 박평중 (2009). 『한국 관련 사진의 유통과 한국 이미지의 생산』(강명숙 외. 『침탈 그리고 전쟁』. 청년사)
- 양상현·박소연·유영미 (2014). 『그리피스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 사진 자료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근대사연구』 71집.
- 오승재 외 (2003). 『인돈평전』. 지식산업사.
- 이경민 (2006).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카이브북스.
- 이경민 (2010). 『제국의 렌즈』. 산책자.
- 이덕주 엮음 (2007). 『옛 사진으로 읽는 새로운 역사』.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 이덕주 (2007). 『진주 비빔밥과 성자 이야기』. 진흥.
- 이만열 (2003). 『한국 기독교 의료사』. 아카넷.
- 李泰俊 (1938). 『溟江冷』. 『三千里 文學』 38년 1월.
- 一記者 (1922). 『上午十時로 下午十時까지 (二)』, 『개벽』, 1922년 3월.
- 車相瓚, 朴達成 (1925). 『黃海道踏查記』. 『개벽』 60호. 1925년 6월.
- 탁지일 (2011). 『시각 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 집. 한국기독교학회.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_____ (2008).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http://www2.wheaton.edu/bgc/archives/trans/104t01.htm>(검색일 2015. 04.05.)

Abstract

Christian Historical Study on the Pictures of Griffis Collection

Kyoung-Duk Cho (Soonchunhyang University)

Hye-Kyung Chung (Soonchunhyang University)

Sang-Hyun Yang (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paper is considered pictures relating to christianity of William Elliot Griffis's historical materials in terms of korean christianity. He is widely known as the author of 『Corea, Hermit Nation』 (1882). He wrote a large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Korea as well as this book which was a guide book of Korea to westerners at that time. For this he collected materials on Korea passionately and meticulously.

The materials he collected were donated to Rutgers University Librar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And the materials have been named as the Griffis Collection. In this paper, the pictures taking Korean christian School, missionary activity and Believers of Griffis Collection are first reported to academic world. Therefore, the pictures will be a major role of visual materials to reconstructing Korean christian history 100 years ago.

These are divided to pictures taken in Chaeryoung, Hwanghae Province, in jeonju, North Jeolla Province, medical missionary work for background. The each picture taken in Chaeryoung, Hwanghae Province and in jeonju, North Jeolla Province is related to North and South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n, which can help research about a korean missionary of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at the time.

Especially, photos in Chaeryoung, Hwanghae Province background showed how women's bible study was actively operating. Photos related to medical mission were mostly hospitals founded by Rosetta Hall, in Pyongyang. These pictures are materials to study medical missions as well as Korean medical history.

key word: Griffis collection, modern korean christianity picture,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Hwanghae-do Chaeryoung church, Rosetta
Hall

